지식경제부 MK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2월 24일(금) 08: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광 원전수출진흥과장(02-2110-3961), 고 현 사무관(02-2110-3959)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과장(02-2110-5481), 권병훈 사무관(02-2110-5483)

올해 원전 분야 주요기업, 총 5,036명 신규채용

- 해외 수출 등 원전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본격화 -

□ 정부는 오늘(2.24)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원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을 수립·확정

○ 이는 UAE원전 건설·운영 및 추가원전수주에 대비한 원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대책임

< UAE 원전 전문인력 수요 전망 >

○ 우선 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UAE원전 4기를 건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요인력은 '11년 부터 '20년까지 약 1,000~4,000명이며 '17년에 최고 4,307명 예상

< UAE 원전인력 수요전망 >

건설일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지정지	최초 콘크리트 타설	1호기 구조물 공사	1호기 원자로 설치	1호기 기전공사	1호기 연료장전	1호기 준공	2호기 준공	3호기 준공	4호기 준공
UAE	480	1,016	1,377	2,022	3,031	3,457	3,756	3,398	2,448	1,849
국내지원	446	663	688	646	620	594	551	538	410	386
합계	926	1,679	2,065	2,668	3,651	4,051	4,307	3,936	2,858	2,235

○ 특히 최근 UAE측은 자국민 운전인력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측에 UAE원전의 운영을 전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11.11월) 해옴에 따라 향후 투입인력은 기존 전망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당초, UAE원자력공사(ENEC)은 준공이후 운영인력의 1/3을 자국민으로 투입해 매년 10%씩 늘릴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우리측에 100% 지원 요청

* 금년 중 한수원과 ENEC은 발전소운영지원계약(OSSA) 체결 예정으로 계약기간 10년시 약 30억불 추가 수익 확보 가능(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계약시 약 180억불)

○ 향후 베트남과 터키 등 추가로 해외원전을 수주할 경우, 건설·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소요도 전망 가능

* UAE 1,2,3,4호기 외에 신규 8기 수주가능성 고려

○ 해외 원전인력은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인력양성이 반드시 필요

- 신규채용후 원전운영을 수행하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교육과 현장경험이 필요

* 원전운전을 위해서는 법적요건(원자로조종사면허 등)을 갖추기 위해 기본 교육1년, 현장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 해외 원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 주요내용 >

1 해외 원전인력 공급 기반 확충

○ 원전 마이스터고, 원전 특성화대학, 국제원자력대학원 등을 통해 인력수요에 따른 수준별 인력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 (기능인력) 경북 울진 평해공고를 제1호 원전 마이스터고로 지정*(13.3월 개교)하였으며 올해 제2의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12년부터 원전 수출시 필요한 원전기능인력(건설·유지·보수 등)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 시범사업(경북 경주)」을 착수

- (전문인력) '10~'11년까지 총 9개의 원전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한데 이어 '12년에 1~2개 대학교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 부경대, 경희대, 동국대(경주), 조선대, 부산대, 세종대, 영남대, 울산과기대, 한양대 등

- (고급인력) 올해 3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개교를 통해 고급 원전 전문인력 양성(연간 100명)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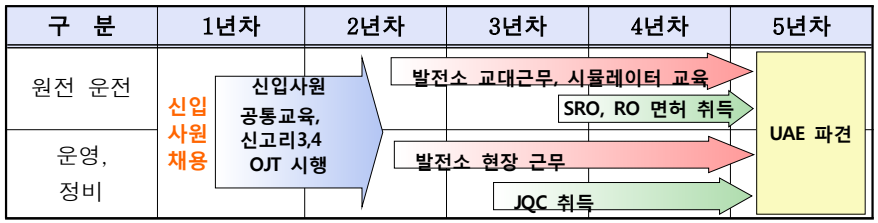
○ 또한 체계적인 원전인력사업 추진을 위한 『원전산업 인력양성센터』를 금년부터 원전수출산업협회에 설치 하여 운영중

2 원전 공기업 채용확대(UAE파견 전문인력 조기 채용)

○ 원전 관련 공기업 및 대기업은 금년 UAE 및 국내원전 건설 운영을 위해 총 5,036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은 2016년 투입예정인 UAE 사업 핵심인력의 경우 4년 앞당겨 금년에 조기 채용함으로써 UAE원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

* 원전운영인력이 투입되는 '16년부터 UAE원전에 신고리 3,4호기 경험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운전·설계·정비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육기간 등을 고려해 4년 앞당겨 선발



* SRO(Senior Reactor Operator,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RO(Reactor Operator, 원자로조종사면허)
JQC(Job Qualification Card, 직무수행능력인증제)

< 신규채용 세부내용 >

◇ 사업주체인 한수원(주)를 비롯한 주요산업체(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중공업)들은 1,818명을 채용하여 원전건설 및 운영부문에 투입할 예정

- 한수원(주)는 원전 건설관리 및 운영부문에 1,090명
- 한전기술(주)는 원전 설계용역 등에 240명
-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전연료 설계 및 제조분야에 139명
- 한전 KPS는 발전소 정비부문에 172명
- 두산중공업은 원전 설비 및 기기제작 부문에 177명

※ 원전정비, 청소용역 등을 당당하는 중소업체의 채용인력은 제외

◇ 국내 건설회사(현대, 삼성, 대림, GS 등)들도 원전공사를 수주하면서, 금년도에 3,218명을 채용할 예정

- 이중 현대건설이 2,630명의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GS건설 434명, 이외 4개 업체(대우건설, 삼성건설, SK건설, 대림건설)는 154명을 신규채용할 계획

○ 이와 함께 원전관련 중견·중소 협력업체 역시 해외 및 국내 원전사업확대에 맞춰 신입직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3 수출노형(APR 1400)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졸업시즌에 맞춰 채용을 추진하고 APR 1400에 특화된 체계적 교육훈련을 거쳐 해외사업에 투입하고,

*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지역본부 교육훈련시설 등을 활용 2,500여명까지 교육훈련 가능

○ UAE 원전 및 추가 원전 수주에 대비하여 현재 건설 중인 APR 1400 원전(신고리3,4, 신울진1,2)에 훈련인력을 대폭 추가 배정

○ 아울러, 기존 노형 운영인력을 수출 노형(APR 1400) 운영인력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 APR 1400 운전면허 취득시 승진가점 부여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숙련인력의 멘토링을 통한 현장 OJT 개선으로 조기에 전문성을 확보 하고 신형 APR 1400 시뮬레이터를 조기 개발해 운영인력의 역량강화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4 해외 파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 승진 가점 부여 및 해외 근무수당 인상 등 인사우대 실시

*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사업목표 적기 달성시 성과급을 지급하고, 원전 1호기 적기 준공시 ENEC이 한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2억불)를 참여기업과 공유 추진

○ 향후 가족동반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현지 주거 여건 개선

○ 파견 직원들의 가족 동반 체류에 대비, 인근 국제학교에 한국인 입학쿼터 확보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UAE정부와 협의

* '12년 상반기중 UAE사업 참여기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원전기업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 >

○ 금번 발표된 추진계획에 따라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 분야 주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한수원 주관 「2012 원전기업 합동 취업설명회」가 상반기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의 편의를 적극 제공할 계획